동국대 이사 · 감사 후보 복수 추천

조계종 종관위, 10월 29일 제115차 회의서

승가학원 이사 후보 복수추천
동국대 경주 총추위원 구성도

올해 말과 내년 초에 임기가 만료되는 동국대 이사와 감사들의 후보자 추천이 이뤄졌다.

조계종 종립학교관리위원회(위원장 혜일, 이하 종관위)는 10월 29일 열린 제115차 회의에서 동국대와 승가학원 임원 후보 복수 추천 등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종관위는 임기 만료 예정인 동국대 이사 후보를 복수 추천했다. 12월 7일 임기가 만료되는 돈관 스님의 후임 이사 후보로는 돈관(은해사 주지) · 덕조(총무원 사회부장) 스님이, 12월 19일 임기 만료되는 성타 스님의 후임 이사 후보로는 정문(중앙종회의원) · 정수(불국사승가대학장) 스님이 추천됐다.

내년 2월 17일 임기가 만료되는 현 동국대 이사장 법산 스님의 후임 이사 후보로는 현문(통도사 주지) · 범해(중앙종회의장) 스님이, 정념 스님의 후임 이사 후보로는 원명(봉은사 주지) · 자현(중앙승가대 조교수) 스님이, 성효 스님의 후임 이사 후보로는 성월(前 용주사 주지) · 성효(총무원 호법부장) 스님이 각각 복수 추천됐다.

지난 9월 임기가 만료된 동국대 감사 주경 스님의 후임 후보로는 법원 스님(직할)의 추천으로 일화 · 연광 스님이, 설도 스님의 추천으로 우봉 · 도윤 스님이 추천됐으나 차기 회기로 이월해 결정키로 했다. 내년 1월 4일 감사직 임기 만료되는 호산 스님의 후임으로는 호산(중앙종회의원) · 성화(초심호계위원) 스님이 복수추천됐다. 승가학원 임원도 복수추천됐다. 사직한 본각 스님의 후임 후보로는 혜도(자룡사 주지) · 도현(구현사 주지) 스님이 이름을 올렸다.

이와 함께 종관위는 동국대 경주캠퍼스 총장(부총장급) 후보자 추천위원을 구성했다. 현 이대원 동국대 경주캠퍼스 총장은 내년 2월 임기 만료된다. 총장 선출을 위한 총장추천위원회에 참여하기 위한 종단 측 추천위원으로는 혜일(종립학교관리위원장) · 삼혜(총무원 기획실장) · 원명(봉은사 주지) · 원명(중앙종회의원) 스님이 구성됐다.

신성민 기자

"뜨거운 수행바람, 널리 퍼지길"

조계종 수행바라미 회향, 20개 단체 참여



지난 5개월간 주요 수행법의 확산을 위해 수많은 불자들이 참여한 수행바라미가 10월 27일 회향했다.

계율과 간경, 염불과 참선 등의 5대 수행 정착을 위한 수행바라미가 회향했다. 조계종 포교원과 중앙신도회는 10월 27일 광명 금강정사에서 2019 수행바라미 회향법회를 개최했다.

회향법회는 포교원장 지홍 스님을 수계법사로 한 수계식과 1차 봉정암부터 5차까지 빠지지 않고 참여한 실무자들을 포상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조계종 주요 수행법의 정착과 보급을 위해 시작한 수행바라미에는 5개월간 △전국교사불자연합회 △전국교수불자연합회 △언론사불자연합회 △조계종산악회 △대한불교청년회 △경제인불자연합회 △한국세무사불자연합회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 △예비역장성불자회 △전국금융인불자연합회 △각 교구신도회 등 20개 단체에서 175명의 종단, 신도 주요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수행바라미 회향에 대해 이기흥 중앙신도회장은 "5개월간의 수행 여정을 함께한 이들에게 감사를 표한다. 생활 속 수행이란 새로운 불교신행문화를 만들어 가자"고 당부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는 수행바라미 정진연수를 통해 향후 포교, 신행단체의 수행프로그램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韓中日불교, 인류운명공동체 구축 선언

제22차 한중일 불교우호교류회의 중국 주해대회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한국과 중국, 일본 동북아시아를 대표하는 3국 불교도들이 불교정신을 바탕으로 분쟁을 봉합하고, 각 국가와 민족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인류운명공동체 구축에 나설 것을 천명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원행, 조계종 총무원장)는 10월 30일 제22차 한중일 불교우호교류회의 중국 광동성 주해대회에 참석해 중국 · 일본 불교대표단과 이 같은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불교와 인류운명공동체의 구축'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는 한국불교종단협의회를 비롯해 중국불교협회와 일중한국제불교교류협의회가 3국 불교의 황금유대를 재확인하고, 오늘날 불교가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오전 보타사에서는 세계평화기원법회가 봉행됐다. 이 자리서 종단협 회장 원행 스님은 평화기원 메시지를 통해 3국에서 꽃피운 불교문화를 상찬하면서 불교가 세계평화와 인권증진에 더 많이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행 스님은 "지금 세계와 한중일 3국 앞에 놓인 현실은 매우 엄중하다. 특히 한반도의 갈등을 해소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이뤄내는 것은 전 세계적 관심이자 과제"라며 "한국 국민들과 불교계는 간절히 화합을 희망하고, 분단을 극복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건설하는데 앞장서고자 한다. 이웃나라의 불교계 역시 부처님의 대자대비 사상에 입각해 적극 지지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불교와 인류공동체' 주제로
세계평화 기원 · 학술대회 등
한국대표단 100여 명 참가해
3국 공동선언문 합의 이끌어

중국불교협회 부회장 연각 스님은 "〈화엄경〉에서 심(心), 불(佛), 중생(衆生) 시삼무차별(是三無差別)이라 했다. 일체중생은 체성평등이자 동체불이"라며 "불교의 자비와 평화의 교의는 무아이타의 정신이고, 방편의 지혜이며, 원한을 풀고 분쟁을 메워 장벽을 돌파하는 힘"이라고 치사했다.



3국 불교대표단이 공동선언문에 합의한 뒤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오른쪽 첫 번째는 종단협 사무총장 지민 스님.

일중한국제불교교류협의회장 이토 유이신 스님 역시 '인류운명공동체'에 공감하면서 "인간은 자연과 사회의 일원이며,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의해 살아갈 수 있는 존재다. 참으로 무력한 나임을 반성하고 자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인류운명공동체에 대한 이 같은 3국 불교대표들의 긍정적인 입장에 따라 3국 불교도들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공감대를 모아 다른 문명과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법맥과 우의를 증진하며 우호가 이어지도록 노력키로 했다.

선언문에 따르면 3국 불교도는 △자비평화 교의를 펼치며 선교방편의 지혜로 원한을 풀고, 차별을 없애며 분쟁을 봉합 △중도원융 정신을 바탕으로 불교와 기타종교, 기타문명의 대화교류 △연기공상 사상에 따라 환경보호, 저탄소, 재활용 등 생활방식 확대 등에 힘쓸 것을 다짐했다. 한편 이번 대회에는 한국 측에서 종단협 회장 원행 스님을 비롯해 수석부회장 문덕 스님(천태종 총무원장), 차석부회장 회성 정사(진각종 통리원장), 부회장 홍파 스님(관음종 총무원장) · 인선 정사(총지종 통리원장) 등 100여 명이 참가했다.

초격 스님 "승려복지 · 인재불사 최선"

조계종 제25교구본사
봉선사 주지 취임법회
남양주시에 쌀 기탁도

조계종 제25교구본사 봉선사 주지 초격 스님이 공식 취임과 함께 교구 내 안정적인 승려복지와 인재불사에 매진할 것을 다짐했다.

제25교구본사 봉선사는 10월 25일 경내에서 '제16대 교구장 서성 초격 스님 취임법회'를 봉행하고, 교종본찰로서의 면모를 일신해 모범 교구본사로 거듭날 것을 서원했다. 취임법회에는 봉선사 조실 월운 스님을 비롯한 본말사 스님들과 총무원장 원행 스님, 중앙종회의장 범해 스님, 전국교구본사주지협의회장 원경 스님 등 내빈스님, 이재명 경기도지사, 조광한 남양주 시장 등 사부대중 2000여 명이 운집했다.



조계종 제25교구본사 주지 초격 스님이 10월 25일 취임법회를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구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날 봉선사 주지 초격 스님은 취임식에서 앞서 봉선사를 이끌어온 前주지 일관 스님에게 감사인사를 전하면서 "4년이라는 짧지 않은 임기 동안 운허 노스님과 선대스님들의 유지를 받들고, 어른 스님들을 모시며 스님과 신도들이 행복한 교구로 위상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초격 스님은 이어 △교구 내 승려복지 △모범적 포교방법 개발 △수행환경 조성 △후진양성과 인재불사 △조사 선양사업 △재정자립 및 투명화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초격 스님은 "불교가 이 땅에 들어온 지 1650여 년이 흐른 지금 불교는 머뭇머뭇하는 사이에 시대를 선도하지 못하고 타종교에 뒤쳐진 모습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정신문화를 선도하는 봉선교구와 한국불교 미래세대를 위한 행복한 불사에 모두 역사의 일원으로 변화와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가도록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봉선사 회주 밀운 스님은 조실 월운 스님을 대신해 "신임주지 취임을 기념해 1억 원을 들여 지역사회 이웃에게 전달할 쌀을 마련한 초격 스님의 뜻이 대단하다"며 "앞으로도 주지 취임식에 이처럼 이웃을 위한 일이 계속됐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치사에서 "봉선사는 한국불교 근대화와 교육의 산실이었다. 봉선사가 종단과 한국불교에 끼친 영향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면서 "장엄한 길을 새로운 주지스님을 위시해 봉선사 사부대중이 함께할 것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봉선사 원로의원 일면 스님 또한 주지 초격 스님의 다양한 수행이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수도권 문화중심지로 부상한 남양주시와 이를 뒷받침하는 봉선사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종무행정에 매진해줄 것을 당부했다.

중앙종회의장 범해 스님과 전국교구본사주지협의회장 원경 스님은 선지식의 유지를 이어가는 교종본찰 봉선사가 불법(佛法)을 선양하고, 대사회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힘이 되는 교구본사가 되길 기원했다. 이외에 이재명 경기도지사, 조광한 남양주시장 등 정관계 인사들도 축하인사를 전했다.

이후 봉선사 주지 초격 스님은 화환 대신 공양을 받아 마련한 쌀 20kg 1000포대를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나눠달라며 조광한 남양주시장에게 전달했다.

남양주 봉선사=윤호섭 기자

"비누로 손·얼굴 한번 씻었는데 피가 맑아지고 뇌파가 안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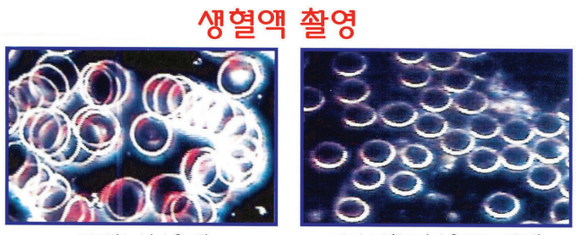
보약을 먹은 것도, 주사를 맞은 것도 아니고 BLOOD MATE® 단 한번 쓰고 20분도 채 안되어
"엉켜있던 적혈구가 정상 적혈구로, 불안정한 뇌파가 안정된다."

항균(대장균, 포도상구균) 99.9%가 아토피, 검버섯, 무좀, 사타구니 가려움증, 뽀루지, 비듬, 여드름 등 각종 피부질환 개선은 물론 탈취 75%는 발냄새, 겨드랑이, 체취, 홀아비, 노인냄새 제거

BLOOD MATE®
CS137(세슘) 방사능 제거용

효과 : 8년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피폭자(8개현 5,600만명)의 방사능 치유 목적에 의해 세계 최초로 개발된 일본 정부의 예산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제품.

생혈액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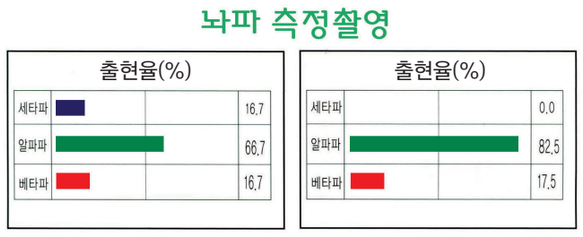


연전현상(사용전) 정상 적혈구(사용10분이내)

피가 맑아져서 혈액순환이 정상화되고 뇌파가 안정되고 정신이 맑아진다면 혈액순환 장애로 일어나는 모든 질환과 뇌파의 불안정에 의한 정신 이상을 사전에 예방할 것입니다.

피가 맑아지고 뇌파가 안정되는 비누
BLOOD MATE®
항균 99.9% 탈취 75% 음이온 126cc 원적외선 방사 90.2%
계면활성제가 없는 천연원료로만 제조된 제품입니다.

뇌파 측정촬영



사용전 사용후

탈모예방 발모촉진



사용전 사용6개월 후

BLOOD MATE®의 인체에 미치는 유익한 영향들은어깨, 허리통증, 방사능 제거(세슘) 등 일일이 열거할 수가 없어 (약사법 등) 부득이 체험 (사용)에 의해 그 효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위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가가 나서서 국민건강을 위하여 보호 지원 육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검버섯 제거 현상



㈜에이스 삼강 02)353-9692 010-2791-3696 | 농협 301-0238-2776-51 예금주 : ㈜에이스 삼강